

겨울에 만나는 강진청자축제, 즐길거리 '풍성'

'불과 빛' 테마, 내달 23일~3월1일까지 개최... 축제 준비 돌입

내달 9일까지 사전예약 시 눈썰매·청자성형물레 체험 등 할인 혜택

강진군은 지난 12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강진청자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축제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강진원 군수 주재하에 행사별 세부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처음 시도하는 겨울 축제이자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겨울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관광도시 강진으로 재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개최 시기를 옮긴 청자축제는, 불과 빛을 활용해 겨울 축제의 특색시장을 노린다. 청자의 탄생을 상징하는 '불과 빛' 이미지를 강조해 화목가마 불 지피기, 화목소원 태우기, LED 새해소원 풍등 날리기 등을 선보인다.

특히 빛 조형물 '청자의 꿈'은 MZ 세대의 SNS를 강타할 야간경관 공간으로 주목된다.

눈썰매, 질라인, 빙어낚시, 야외족욕탕, 화목가마 장작때기, 청자골힐링 '불명킴프', 추위 극복 공간까지 가족, 연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청자성형물레, 청자코일링, 청자 굿즈 전시, 청자 공동판매장 운영으

로 전년 고려청자의 정제성과 전통성을 살렸다.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를(www.celadonfestaco.kr) 통해 사전예약하면 눈썰매, 청자성형물레, LED 풍등 날리기, 청자골 신년맞이 가래떡 뽑기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2023 시그니처 청자컵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내달 23일부터 3월 1일(수)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고려청자박물관 일대) 일원에서 열린다. /강진=한홍수 기자

완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확대

관내 숙박시설·음식점·관광지 등 이용 시 지원

완도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로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20명 이상으로 당일 기준 체도권은 1인당 1만2000원, 섬 지역은 1

인당 1만5000원을 지원한다.

1박의 경우 체도권은 1만5000원, 섬 지역은 1만8000원이 지원되고,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은 1인당 18,000원, 섬 지역은 2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 관광객은 30명 이상으로 당일 체도권은 1인당 6000원, 섬 지역은 1인당 8000원이 지원되며, 1박 이상은 체도권 8000원, 섬 지역은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완도=이두식 기자

무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기업·참여자 모집한다

무안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제조업 기술계 기능 매니저사업)에 참여할 참여자 9명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으로 무안군은 지난해 10월 2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추진 예정인 제조업 기술계 기능 매니저사업은 제조업 관련 3개 분야(설치·정비·조작, 산업안전, 전기·전자·통신)의 경력을 갖춘 신중년을 모집해서 권역별로 나뉜 관내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노하우 전수 등 기술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50~60대 제조업 경력자로 각 분야와 관련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자 또는 관련 국가자격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국가자격 기능사 이상, 민간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로 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신중년을 모집한다.

참여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상기 3개 분야와 관련된 업종이 주업인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목포사무소(목포시 영산로 118, 목포KT빌딩 2층,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uanjjob@naver.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안=박태연 기자

'핑퐁민원' 없앤다... 영암, 업무조정 TF팀 구성·운영

신속한 업무조정... 민원해결 우선



영암군은 '핑퐁민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업무조정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조정 TF팀은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되는 복합민원이나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배심원 제도로 운영되는 업무조정 TF팀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업무가 발생하면 주관부서인 혁신전략팀이 배심원단 가운데 분장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7명의 배심원을 추천해 회

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이해 관계 부서는 이를 즉각 수용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영암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서 업무조정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관 부서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군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업무조정 TF팀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혁신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2023년을 '영암군 혁신 원년의 해'로 삼고 시책일일제와 행사성 사업평가제, 혁신시책 발굴, 협업 TF팀 운영, 군민참여 거버넌스 행정,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군의 행정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해남, 합동설계반 운영 '예산절감·신속집행' 효과

설계용역비 7억원 절감·신속집행 위한 조기발주 효과 '특독'

해남군이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신속집행에 특효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읍면 시설직 직원들을 주축으로 14명 3개팀의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설계반은 2023년 본 예산의 주민생활편의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총 594건, 249억원 중 357건, 127억원의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도로측구 10건, 농로 및 마을안길 170건, 용·배수로 정비사업 165건, 소화천 정비사업 3건, 하수시설정비 9건 등 주민들의 영농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체 합동설계를 통해 설계용역비 7억원 절감효과는 물론 조기 발주를 통한 예산 신속집행에도 탄력이 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주민의견 수렴 및 측량을 시작해 2월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영농기 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현관 군수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동설계를 통해 예산절감과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설 연휴 청소업무 종합대책 추진

16~27일 특별대청소... 생활·음식물쓰레기 수거

목포시가 설 연휴를 대비해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16~27일 시가지 청소업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6~20일을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주요도로 및 취약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고, 목포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대한 특별대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평화광장 등 주요관광지에 시민과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청소기동반을 특별 편성·운영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후인 25~28일에는 연휴기간 미수거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쓰레기는 연휴기간 중인 21·23·24일은 평일과 같이 정상수거하며, 음식물쓰레기는 21·24일 수거하므로 연휴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일에 맞춰 전일 야간에 배출해야 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설 명절 선물로 '진도 황금봉·레드향' 최고

진도군은 설을 앞두고 제철을 맞아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 출하가 한창이라고 16일 밝혔다.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은 속이 빈 특성이 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무농약 과일이다.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정한 크기 이상 규격 과일만을 출하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 30개 농가(6.1ha)가 재배하고 있다.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문 또한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kg, 5

kg, 10kg 박스 포장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약 130t을 생산해 13억여원의 농가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의 대표 특산물인 황금봉과 레드향은 진도 대과보다 재배면적당 소득이 높아 지난 2008년부터 재배가 시작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과 적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를 자랑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상품 우량묘목 지원, 맞춤형 전문기술 컨설팅, 재배교육, 스마트팜과 무인방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박재영 기자

건강과 웰빙의 대표 음식!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달마지쌀골드, 대봉감, 매력한우, 무화과, 영암멜론, 영암배, 황토고구마, 황토수박